

화연(花宴)의 히카루겐지와 도노츠후조*

- 궁중의례에 있어서 가자시(挿頭)와 사물(賜物)의
기능을 중심으로 -

김 홍 래**

honglae@hotmail.com

〈 目 次 〉

- | | |
|------------------------------|----------------------|
| 1. 머리말 | 3. 궁중의례에 있어서 사물(賜物)의 |
| 2. 가자시(挿頭)의 역사적 전개와 기능
변화 | 의미와 기능
4. 맺음말 |

Key word : 히카루겐지(Hikarugenji), 무악(Bugaku), 가자시(Kazashi), 사물(Imperial gift), 궁중의례(Court ritual)

1. 머리말

다음은 기리츠보 천왕을 비롯하여 동궁, 히카루겐지(光源氏), 도노츠후조(頭中將)가 출석한 화연(花宴¹⁾)에서 일본 아악이 화려하게 연주되는 장면이다.

무악과 같은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잘 준비해 두셨다. 차츰 날이 저물어 갈 때, 봄날 피꼬리가 지지권다는 무악(춘앵전)이 흥취 있게 연주되는데, 지난번 단풍이든

* 본 논문은 2011년도 정부재원(교육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다(NRF-2011-413-G00018).

** 세계민족무용연구소 전임연구원. 일본고전문학 일본문화 전공.

1) 화연은 헤이안시대 궁중에서 거행되던 벚꽃놀이 연회이다. 3월경에 개최되는 임시 궁중 행사지만, 천왕이나 상왕도 참석하여 무악(舞樂)과 함께 벚꽃을 즐겼다고 한다.

가을날 행사에서 히카루겐지의 춤이 생각나서, 동궁이 가자시(挿頭)를 하사하시며 간절히 요청하시는 것을 히카루겐지는 차마 거절하기 어려워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유유히게 옷소매를 넘기는 부분 한소절만 춤을 추시는 모습이, 비견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좌대신(左大臣)은 평소에 느끼던 원망스러움도 잊어버리고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 동궁께서 ‘도노츠히조(頭中將)는 어떻게 되었나? 늦은데!’라고 말씀하시며 유화원(柳花苑)이라는 춤을 이쪽은 조금 시간을 들여서 춤을 추는데, 이러한 일도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잘 준비했는지, 매우 감흥이 있어서 동궁이 의복을 하사하시는 모습을 사람들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花宴, ①354-355)

선행연구에 있어서 상기한 화연 장면과 모미지노가(紅葉賀) 마키 생일연회 장면에서 보이는 히카루겐지의 청해파(青海波)는 히카루겐지의 초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구상되었으며,²⁾ ‘빛’이라고 하는 비유표현과 연동하여 소위 잠재왕권이 엿보이는 장면으로 널리 해석되고 있다.³⁾ 또한 유아사 유키요(湯浅幸代)씨는 생일연회에서 히카루겐지 머리장식이 단풍나무에서 국화꽃으로 바뀌어 장식되는 것은 일종의 포상으로, 『만엽집(万葉集)』에서 단풍나무는 떨어지는 것으로 국화꽃은 남아있는 것으로 노래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자면, 단풍나무와 국화꽃의 대조적인 이미지가 각각 기리츠보 천왕의 비호 소멸과 성대의 지속을 상징하며 히카루겐지 한사람에 의해 체현되고 있다고 논한다.⁴⁾ 그러나 한편으로 상기한 화연 장면을 초월성과 잠재적 왕권이라는 고대적 혹은 신화적 발상만이 아니라, 헤이안시대의 당시대적 발상과 논리로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일찍이 마츠이 겐지(松井健児)씨는 화연 장면과 생일연회 장면이 정치적 질서를 확인하는 장면이라고 지적하고 있다.⁵⁾ 또한 필자는 줄고에서 『교훈초(教訓抄)』와 『악가록(樂家録)』의 기사를 중심으로 상기한 화연 장면의 ‘춘앵전(春鶯轉)’은 동궁을 칭송하는 무악이며, ‘춘앵전’에 이어 히카루겐지가 동궁의 즉흥적인 요청을 받아들여 ‘청해파’ 일부를 피로하는 것은 동궁 즉 스자쿠 천왕(朱雀

2) 堀淳一(1997・3) 『青海波選曲の理由』 『中古文学』, pp.103-117. 三田村雅子(2002・4) 『青海波再演「記憶」の中の源氏物語』 『源氏研究5』, pp.30-54.

3) 河添房江(1992) 『源氏物語の喩と王権』 有精堂出版

4) 湯浅幸代(2007・9) 『朱雀院幸行の舞人・光源氏の菊の「かざし」、紅葉と菊の「かざし」の特性、及び対照性から-』 『日本文学』, 56, pp.28-29.

5) 松井健児(2002) 『朱雀院行幸と青海波』 『源氏物語の生活世界』 翰林書房, pp.84-85.

帝)을 칭송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정치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논하였다.⁶⁾ 이러한 줄고의 논지를 발전시켜, 본고에서는 밑줄 부분 ‘동궁은 가자시(挿頭)를 하사하시며’와 ‘동궁이 의복을 하사하시는’에 주목하고 싶다.

헤이안시대 궁중의례에 있어서 천왕이 신하에게 머리장식이나 의복을 하사하는 것을 사물(賜物, 혹은 賜興)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하사품에 정치적 의미와 기능은 없었을까? 만약 헤이안시대 사물에 정치적 의미와 기능이 있었다면 그것은 헤이안 귀족사회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모노가타리에 반영되지 않았을까?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헤이안시대 궁중의례에서 머리장식과 사물이 가지는 의미와 기능을 밝히고, 화연에서 히카루겐지와 도노츄조(頭中將)에게 하사된 가자시와 사물을 분석하여,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 구상에 있어서 화연의 가자시와 사물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2. 가자시(挿頭)의 역사적 전개와 기능 변화

(1) 나라시대 가자시의 의미와 기능

우선 히카루겐지가 동궁에게 하사받은 머리장식 가자시란 무엇일까? 고대 일본에 있어서 가자시(挿頭, 挿頭花, 삽두화)는 연회나 궁중행사에서 머리에 나뭇가지나 꽃을 꼽아서 치장하는 장식품을 말한다.⁷⁾ 이러한 머리장식은 『만엽집』⁸⁾ 와카에서 일찍부터 보이고 있다. 다음은 『만엽집』에서 가지시 머리장식을 노래한 와카 중 일부를 인용하였다.

① (前略)山神の 奉る御調と 春べは 花かざし持ち 秋立てば 黄葉かざせり
(以下略)(万葉・一・柿本人麻呂・38)

6) 줄고(2014) 『히카루겐지의 무악 - 궁중의례의 의미와 기능을 중심으로』 『일본 악무와 문화』 민속원, pp.200-201.

7) 10세기에 성립한 『왜명유취초(倭名類聚抄)』술예부(術芸部)에는, ‘삽두화(挿頭花), 양자한어초(楊子漢語抄)에서 말하기를, 두화(頭花), 가자시(賀佐之), 민간에서 머리장식을 말하는 세 글자’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후 민간에도 전파되어 오늘날 간자시(簪, 비녀)의 어원이 되었다.

8) 이하 본문인용은 講談社文庫에 의한다.

- ② 嬢子らが 挿頭のために 遊士の 薊のためと 敷き坐せる 国のはたてに
咲きにける 桜の花の にはひはもあなに (万葉・八・若宮年魚磨・1429)
- ③ 高円の秋の野の上の瞿麦の花うらわかみ人のかざしし瞿麦の花
(万葉・八・丹生女王・1610)
- ④ ももしきの大宮人は暇あれや梅を挿頭してここに集へる
(万葉・十・詠み人知らず・1883)
- ⑤ 山吹は撫でつつ生さむありつつも君来ましつつ挿頭したりけり
(万葉・二十・置始連長谷・4302)

상기한 용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만엽 와카에서 가자시로 노래된 식물은 단풍나무(紅葉), 매화나무(梅花), 벚꽃(桜の花), 패랭이꽃(瞿麦, 撫子), 황매화나무(山吹)와 같이 다양하다. 『신편국가대관(新編国歌大観)』에 의하면 『만엽집』에서 가자시를 노래한 와카는 전부 45수인데, 그 중에서 단풍나무 13수, 매화나무 11수, 싸리꽃(萩花) 7수, 등나무(藤) 2수, 패랭이꽃 2수, 벚꽃 2수, 배나무(梨の木) 1수, 겨우살이(寄生木) 1수, 황매화나무 1수가 노래되고 있다. 사계절 각 시기에 맞는 식물을 꺾어서 가자시를 비너처럼 머리에 꽂아서 장식하는 것은⁹⁾ 식물이 가진 생명력과 주술적인 힘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감염주술(感染呪術)의 하나로 생명력의 증대를 기원하는 주술적 행위였다고 알려져 있다.¹⁰⁾

한편 식물을 머리장식에 사용하는 주술적 행위는 고대 중국사회에서도 보이고 있다. 5세기말 양나라(梁) 종릉(宗凜)이 육조시대(六朝時代) 호북성(湖北省) 주변 풍속을 정리한 『형초세시기(荆楚歳時記)』¹¹⁾에 의하면 음력 5월 5일에 연엽(楝葉)을 머리에 장식하고¹²⁾, 9월 9일에 수유(茱萸)를 꺾어 머리에 꽂아서¹³⁾ 액을 물리치고 장수를 기원하는 풍속이 있었다고 한다. 수나라(隋)

9) 小川安朗(1986) 『万葉集の服飾文化 下』 六興出版

10) 中村義雄(1978) 『魔よけとまじない-古典文学の周辺-』 塙新書, p.8. 和歌森太郎(1981) 『花と日本人』, 『和歌森太郎著作集』 第八卷, 弘文堂. 湯浅浩志(1993) 『植物と行事-その由来を推理する』 朝日選書.

11) 이하 중국문헌의 본문 인용은 문연각(文淵閣) 사고전서(四庫全書)에 의한다.

12) 周処の『風土記』を按ずるに、謂ひて角黍と爲す。人、並て新竹を以て筒糭を爲る。楝葉を頭に挿し、五綵を臂に繫げ、謂ひて長命縷と爲す。(『荆楚歳時記』五月)

13) 九月九日に宴会す。未だ何れの代より起こるかを知らず。然れども、漢世より以來、

시대의 세시풍속을 집대성한 두태경(杜台卿)의 『옥촉보전(玉燭宝典)』¹⁴⁾과, 당나라(唐) 초기 고조(高祖)의 칙명을 받아 만들어진 유사(類書) 『예문유취(藝文類聚)』¹⁵⁾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술되고 있어서 연엽과 수유를 머리에 장식하여 액막이와 장수를 기원하는 토착 신앙이 고대 중국에 정착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대 중국 식물 머리장식과 고대 일본 가자시의 영향관계를 명확히 알 수 없지만, 5세기 이전에 일본 가자시 관련 기록이 없다는 점에서 중국 민간 신앙이 중국 문물 유입과 함께 일본 풍속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고 싶다.

다만 『만엽집』에 있어서 식물로 머리를 장식하는 것은 ‘가자시’ 외에도 ‘우즈(髻花)’와 ‘가즈라(葛)’가 있었다. 세키네 신류(関根真隆)씨에 의하면 일본 역사서에 기술되는 ‘우즈’는 공적인 것으로 식물 이외에도 금속으로 만든 장식도 있고 상투 부분에 제한적으로 장식되고 있었던 것에 비하여, 『일본서기(日本書紀)』와 『속일본기(続日本紀)』에 기록이 없는 ‘가자시’는 사적인 것으로 생하나 나뭇가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장식하는 머리 부분도 자유로워서, 양자의 성격은 상당히 달랐다고 논하고 있다.¹⁶⁾ 또한 ‘가즈라’는 넝쿨이나 풀, 꽃을 등근테 모양으로 짜서 목에 걸거나 머리에 쓰는 장식으로 ‘우즈’나 ‘가자시’와는 그 모양이 달랐지만, 식물 이외에 구슬과 같은 진귀한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고,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즈’와 같은 공적인 성격의 장식이 아닐까 추측된다.

한편 『만엽집』의 전체 용례 중에서 단풍나무와 매화나무가 많이 노래된 것에 주목하고 싶다. 다음은 덴표(天平) 2년(730) 정월 13일에 오도모노 다비토(大伴旅人) 저작에서 거행된 유명한 ‘매화 연회(梅花の宴)’에서 노래된 와카 중 일부이다.

未だ改めず。今、北人も亦此の節を重んじ、茱萸を佩び、餌を食ひ、菊花の酒を飲まば、人をして長寿ならしむと云う。(『荆楚歳時記』九月)

14) 『荆楚記』に云ふ、「民並べて新竹を以て筒を以て筒粽を為る。棟葉をば頭に挿し、五采縷をば江に投じ、以て火厄を避くると為す。士女あるいは棟葉を取りて頭に挿し、綵絲をば臂に繫げ、謂ひて長命縷と為す」と。(『玉燭宝典』五月仲夏第五)

15) 風土記曰く、九月九日律中無射而数九、俗尚此月、折茱萸房以挿頭、言辟除悪氣而禦初寒。(『藝文類聚』歳時部九月九日)

16) 関根真隆(1974) 「冠帽類及び頭部裝飾」 『奈良朝服飾の研究』 吉川弘文館, p.213.

- ⑥ 梅の花今盛りなり思ふどち挿頭にしてな今盛りなり
(万葉・五・葛井大成・820)
- ⑦ 青柳梅との花を折りかざし飲みての後は散りぬともよし
(万葉・五・沙彌満誓・821)
- ⑧ 人毎に折り挿頭しつつ遊べどもいや愛づらしき梅の花かも
(万葉・五・丹氏磨・828)
- ⑨ 梅の花折りてかざせる諸人は今日の間は楽しくあるべし
(万葉・五・荒氏稲布・832)
- ⑩ 毎年に春の来らばかくしこそ梅を挿頭して楽しく飲まめ
(万葉・五・野氏宿奈磨・833)

상기한 용례에서 알 수 있듯이 ‘매화 연회’ 와카에서 노래된 가자시는 모두 매화꽃으로 통일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대부분 매화꽃을 머리에 장식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¹⁷⁾ 또한 와카를 노래한 작가들의 신분과 지위에 주목하자면, 치쿠고 지방장관(筑後守), 승려(沙彌), 사법관(大判事), 제사관(神司), 사법서기관(大令史)으로 제각각 다르다. 가자시를 노래하지 않았지만 같은 ‘매화 연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신분과 지위까지 살펴 보면 다자이후(大宰府) 장관(帥)인 오도모노 다비토를 시작하여 4등관인 다이니(大弐)와 쇼니(少弐)이외에도 약사(藥師)와 음양사(陰陽師)도 연회에 참석하고 있었다. 앞서 하위 관인과 승려도 가자시를 노래하고 있었으므로 ‘매화 연회’에 참석한 대다수 사람들은 신분과 지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머리에 매화꽃을 장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어서 다음은 덴포 10년(738) 가을 8월 20일에 다치바나노 나라마로(橘奈良麻呂)가 주최한 ‘집연(集宴)’에서 노래된 만요 와카이다.

- ⑪ 手折らずて散りなば惜しとわが思ひし秋の黄葉をかざしつるかも
(万葉・八・橘奈良麻呂・1581)

17) 매화 연회에서 노래된 와카에는 ‘梅の花咲きたる園の青柳は蘊にすべく成りにけらずや’(万葉・五・粟田人上・817)나 ‘梅の花咲きたる園の青柳を蘊にしつつ遊び暮さな’(万葉・五・土師百村・825)와 같이 가즈라를 머리에 장식한 사람도 있었다고 추측된다.

- ⑫ 黃葉を散らす時雨に濡れて来て君が黃葉をかざしつるかも
(万葉・八・久米女王・1583)
- ⑬ 黃葉を散らまく惜しみ手折り来て今夜かざしつ何か思はむ
(万葉・八・県犬養持男・1586)
- ⑭ 奈良山をにはほす黃葉手折り来て今夜かざしつ散らば散るとも
(万葉・八・三手代人名・1588)
- ⑮ 露霜にあへる黃葉を手折り来て妹にかざしつ後は散るとも
(万葉・八・秦許遍曆・1589)

앞서 기술한 ‘매화 연회’ 와카의 가자시가 매화꽃으로 통일되어 있었던 것처럼, 상기한 ‘집회’의 와카에서 가자시는 계절에 맞는 단풍나무로 통일되어 있다.¹⁸⁾ 또한 가자시 와카를 노래한 사람들의 신분과 지위를 살펴보면 주최자인 다치바나노 나라마로 신분은 스쿠네(宿禰)이고, 구메노 오키미(久米女王)는 왕족, 아가타노이누카이노 모치오(県犬養持男)는 스쿠네, 미테시로노 히토나(三手代人名)와 하다노 고헤마로(秦許遍曆)는 신분과 지위가 명기되어 있지 않아서 확인할 수 없지만 일반 귀족 신분으로 참석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그 외에도 천황 경호 문관인 우도네리(内舎人)로서 아가타노이누카이노 요시오(県犬養吉男)와 오토모노 야카모치(大伴家持)가 참석하여 와카를 만들고 있어서 신분과 지위의 구별 없이 단풍나무가 가자시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매화 연회’와 ‘집회’라는 연회 공간에서 신분이나 지위의 구별 없이 그 계절에 맞는 꽃이나 나무를 가자시로 머리에 장식하는 것은, 그 연회나 의례에 참석한 사람들의 표식으로 일률적 수평적으로 기능하고 있었으며,¹⁹⁾ 연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가시적인 일체감을 연출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²⁰⁾

18) 히라타테 에이코씨(平館英子(1998) 「触られる自然」『万葉歌の主題と意匠』塙書房), 『만엽집』에 보이는 머리 장식 식물이 상록수에서 꽃이나 단풍으로 전환되어 가는 것에 대하여 『옥대신영(玉台新詠)』등에서 여성의 머리 장식으로 꽃을 꼽는 표현이 장식문화로 수용되어 식물을 머리에 꼽는 풍습이 주술적 의미를 가진 ‘우즈’에서 장식적 측면이 강한 ‘가자시’로 전환되고 있다고 논한다.

19) 武田佐知子(1997) 「花をまとう、花を贈る」『朝日百科植物の世界』12花の発見

20) 永島朋子(2002・3) 「奈良・平安期における挿頭花装飾の意味と機能-貴族と身分標識」

(2) 헤이안시대 가자시의 의미와 기능

그러나 한편으로 10세기 후반 헤이안 시대에 미나모토노 다카아키라(源高明)가 편찬한 의식서(儀式書) 『서궁기(西宮記)』²¹⁾의 가자시(挿頭花事)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보인다.

등나무 꽃, 대상제(大嘗祭) 및 그에 준할 때 제왕이 꺾는 것이다. 왼쪽에 꺾는다. 제사(祭使)와 열견(列見)의 경우 대신(大臣)은 등나무 꽃을 왼쪽 두건 안에 꺾는다. 납언(納言)이라 하더라도 당일 수석 공경(上卿)은 역시 왼쪽에 꺾는다. 이 날 납언은 벚꽃(桜花)을, 참의(參議)는 황매화나무(山藟)를 사용한다. 모두 오른쪽에 꺾는다. 비참의(非參議)와 변관(弁) 이하에 대해서는 계절에 맞는 꽃을 사용하여 두건 뒤에 꺾는다. 8월 정고(定考) 때 대신은 흰 국화꽃(白菊), 납언은 노란 국화꽃(黃菊), 참의는 용담(竜胆), 변관과 소납언(少納言)은 계절에 맞는 꽃. (중략) 임시제사(臨時祭使)은 등나무 꽃을 사용한다. 왼쪽 두건 아래에 꺾는다. 무인(舞人)은 벚꽃. 오른쪽에 꺾는다. 식약(試藥) 날은 작은 대나무(小竹)를 꺾는다. 배종(陪從)은 황매화나무, 근위사(近衛使)와 차장(次將). 가자시가 없다. 4월 가모신사 제사(四月祭)에는 가까이 있는 칩나무(桂)를 이용하여 가자시로 사용한다. (『西宮記』卷八)

상기한 헤이안시대 의식서의 내용은 나라시대의 그것과 사뭇 다르게 기술되고 있다. 나가시마 도모코(永島朋子)씨는 나라시대의 가자시와 헤이안시대의 가자시를 비교하여 네 가지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하나, 궁중행사에 따라서 가자시로 사용되는 꽃 종류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 둘, 꽃 종류와 장식하는 위치가 신분과 지위에 따라 구별되고 있다는 점. 셋, 행사에 따라서 가자시를 머리에 장식하는 사람은 제한되고 있어서 모두가 가자시를 장식하지 않는다는 점. 넷, 가자시가 특정한 의례와 행사의 장식으로 정착되어 정기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 이상 네 가지 점에 있어서 8세기 나라시대의 가자시에 대하여 10세기 헤이안시대의 가자시는 그 성격이 바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그 원인은 헤이안시대 초기 정치구조의 변화와 관계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²²⁾

『延喜式研究』18, p.8-9.

21) 본문 인용은 吉川弘文館 『増訂故実叢書』에 의한다.

22) 永島朋子(2002・3) 「奈良・平安期における挿頭花装飾の意味と機能-貴族と身分標識-」

고대 일본 귀족사회에는 성덕태자가 헌법 17조와 관위 12계를 제정한 이후 관복 색깔과 부속품으로 신분과 위계 차이를 가시적으로 표시하는 율령위색제(律令位色制)가 기능하고 있었다.²³⁾ 그러나, 헤이안시대에 들어가면서 승전제(昇殿制)의 성립과 의식(儀式) 제도의 변화와 함께 정치기구가 바뀌게 되고²⁴⁾ 율령제 재편이 진행되었으며²⁵⁾, 이와 더불어 천왕의 특권에 의해 궁중에 출사하는 의복색을 우대하는 금색칙허(禁色勅許)와²⁶⁾, 율령위색제와 관계없이 귀족 평상복인 잡포(雜袍) 복장으로 입궁을 허락하는 직의선하(直衣宣下)가 빈번하게 내려지고 있었다.²⁷⁾ 이러한 특권적인 조치가 빈전하게 행해지면서 「의복령(衣服令)」에 근거하여 신분과 위계에 따라 복색이 제한된 위색제(位色制)가 변질되면서, 10세기 이후 위색제는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된다.²⁸⁾ 이와 같이 율령제 재편에 따라 위색제(位色制)가 변질되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신분질서를 식별하는 신분 표식으로 ‘가자시’가 활용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가자시가 사용된 대표적인 헤이안시대 궁중의례로는 즉위식과 수확제가 융합된 대상제(大嘗祭)가 있다. 대상제에 있어서 가자시는 유키 지방(悠紀国)에서 현상되어 공경과 친왕들에게 하사되었고, 대상제에 참석한 사람들의 신분과 지위에 따라 사용하는 꽃이 제한되어 신분질서를 가시적으로 확인하는 도구로 기능하고 있었다. 쇼헤(承平) 이전(931)까지 대상제의 천왕과 좌우대신은 똑 같이 등나무 꽃을 장식하고 있었지만 쇼헤 2년(932)에 거행된 스자쿠 천왕(朱雀天皇) 대상제부터 친왕은 홍매(紅梅) 대신은 등나무 꽃으로, 장식하는 꽃 종류가 더욱 세분화되고 있다.²⁹⁾

또한 헤이안시대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신분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참석자 모두가 격 없이 연회를 즐기는 온좌(穩座, 온노자) 의례에도, 태정관(太政官)

『延喜式研究』18, p.11-19.

23) 武田佐知子(1984) 『古代国家と衣服制-袴と貫頭衣-』 吉川弘文館.

24) 古瀬奈津子(1998) 『日本古代王権と儀式』 吉川弘文館.

25) 吉川真司(1998) 「律令官人制の再編」, 『律令官僚制の研究』 塙書房.

26) 小川肇(1985・10) 「古記録記事を通して見たる禁色勅許-平安後期殿上人層を中心として-」, 『国史学』127.

27) 大丸弘(1964・2) 「禁色雜袍の風俗史的研究」, 『風俗』3-3.

28) 佐多芳彦(2001) 「服装の表象性と記号性-盤領と垂領-」, 『日本歴史大事典』(第三卷特集項目)小学館.

29) 永島朋子(2006・11) 「挿頭花と大嘗祭-挿頭花の献上と下賜-」, 『専修史学』41, p.40-41.

인 대신(大臣)·납언(納言)·참의(參議)에게 열견(列見)에서는 등나무 꽃·벚꽃·황매화나무 꽃이, 정고(定考)에서는 흰 국화꽃·노란 국화꽃·용담 꽃이 각각 장식되어, 신분과 지위 차이를 시각적으로 표시하여 연회 중에도 권위를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었다.³⁰⁾ 이와 같은 헤이안시대 기록은 시간이 가면서 가자시의 신분 지위 표식 기능이 강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헤이안시대 귀족들은 이와 같이 신분 지위 표식 기능이 강화된 가자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마쿠라노조시(枕草子)』³¹⁾에서 세쇼나곤(清少納言)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불거리로는 거동(行幸). 가모사이(賀茂祭)의 환립(還立), 가모모우데(御賀茂詣), 임시제(臨時祭)가 있다. 임시제의 경우 하늘에 구름이 끼고 보기에 추위 보이는데 눈이 조금 내리면서 가자시 꽃들이 무인(舞人)들이 입은 아오즈리(靑摺) 옷에 걸 쳐보이는 것은 이루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이다. (中略) 임시제 칙사는 밭살스러운 사람이라도 있으면 반드시 눈길이 가지 않게 된다. 그러나 등나무 꽃에 얼굴이 가려져 있을 때에는 매력적이다. 역시 지금 지나간 쪽을 자연스럽게 바라보기 마련인데, 기품이 없는 배종(陪從)이 야나기가사네(柳襲) 옷에 가자시로 황매화나무를 장식해서 뻥뻥하게 보이지만 오히려(あふひ, 부채?)를 높이 치면서 ‘가모 신사 목면 어깨띠!’라고 노래 부르는 모습은 매력적이다. (『枕草子』「見るものは」, 348)

세쇼나곤은 좋은 구경거리로 거동, 가모사이(賀茂祭)의 환립(還立, 가에리다치), 가모모우데(御賀茂詣), 임시제(臨時祭)가 있다고 하면서, 그 중에서도 임시제 행렬에 보이는 등나무 꽃 가자시에서 공경(公卿)인 칙사를, 벚꽃 가자시에서 5위 이상 당상관(殿上人)이 담당하는 무인(舞人)을, 황매화꽃 가자시에서 악인(樂人)을 각각 식별하고 있다. 따라서 헤이안시대 귀족사회에 있어서 가자시는 신분과 지위를 차별적이고 수직적으로 식별하는 장치로 널리 활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³²⁾

30) 永島朋子(2002・3)「奈良・平安期における挿頭花装飾の意味と機能-貴族と身分標識」『延喜式研究』18, p.11-19.

31) 본문 인용은 小学館 日本古典文学全集에 의한다.

32) 헤이안시대 가자시가 모두 신분 표식으로 기능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세모노가타리(伊勢物語)』82단에서 고레다카(惟喬) 친왕이 매사냥을 마치고 나가사(渚) 별궁에서 주연을 베풀면서 때 마침 만개한 벚꽃 나뭇가지를 꺾어서 가자시로 사용한 것은 사적인

또한 가자시는 헤이안시대 귀족들의 신분과 지위를 상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장식하는 당사자들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가자시에 대한 헤이안시대 귀족들의 심경을 엿볼 수 있는 외가로 후지와라노 고레노부(藤原惟信)의 ‘山吹もおなじ挿頭の花なれどくもるの桜なをぞこひしき’(金葉·卷九·雑上·藤原惟信)에 주목하고 싶다. 그 내용은 황매화 꽃도 벚꽃도 같은 가자시 꽃이지만 역시 구름 위 벚꽃에 마음이 끌린다는 뜻이다. 앞서 『서궁기』 기사에서 확인했듯이, 황매화꽃(山吹)은 궁중 행렬에서 관현악기를 연주하는 신분 낮은 악인인 배종(陪從)이 머리에 장식하는 가자시이고, 벚꽃(桜)은 5위 이상 당상관이 담당하는 무인(舞人)의 가자시였다. 배종으로 행사에 참가한 후지와라노 고레노부(藤原惟信)는 자기 머리에 꼽은 황매화 꽃과 구름 위 존재와 같은 당상관들이 머리에 꼽은 벚꽃을 비교하면서, 벚꽃에 대한 동경에 빗대어 자신이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없는 아쉬움을 노래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궁중의례는 유교의 예악사상(禮樂思想)을 기반으로 거행되고 있었다. 유교 예악사상은 악무의 사회적 정치적 기능과 목적을 중시하고, ‘예’는 차별과 질서를 위해서 ‘악’은 조화와 융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악무가 가진 조화력과 감화력을 이용하여 이상적인 국가 통치를 이루려고 하였다.³³⁾ 이러한 예악사상의 관점에서 보자면 나라시대의 가자시는 주술적 의미와 행사 참가자의 일체감을 강화하여 신분과 지위를 초월하여 같이 연회를 즐기는 ‘악(樂)’으로서의 기능이 강조되고 있었다면, 헤이안시대에 들어서 가자시는 행사 신분 지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가자시가 제한되고 세분화되어 신분질서를 가시적으로 확인하는 ‘예(禮)’로서의 기능이 강조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3) 히카루겐지 가자시의 의미

여기서 『겐지모노가타리』로 돌아가 보자. 동궁이 히카루겐지에게 가자시를 하사한 것은 모미지노가 마키의 스자쿠잉 생일 연회(御賀)에서 히카루겐지

주연에서 흥을 더하기 위해 연출된 것으로, 나라시대의 그것에 가까웠다(小林真由美 (2001·6) 『『萬葉集』の宴-思ふどちかざしにしてな-』 『成城文芸』175, p.40).

33) 吉川英史(1948) 『日本音楽の性格』 わんや書店.

가 국화꽃 가자시를 머리에 꼽고 청해파를 춤춘 것을 재연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은 스자쿠잉 생일 연회에서 가자시를 머리에 꼽은 히카루젠지가 청해파(靑海波)를 춤추는 장면이다.

가자시로 장식한 단풍나무 나뭇잎이 너무 많이 떨어지고 사이가 벌어져 있어서 히카루젠지의 아름다운 얼굴에 압도되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어전 앞에 있던 국화꽃을 꺾어서 좌대장(左大將)이 바꾸어 꼽아주었다. 해가 넘어갈 무렵 아주 조금 만 비가 내리는 하늘 모습조차도 이 경사스러움을 이는 체하는 표정을 짓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히카루젠지 모습에 꽃잎 색이 발해서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국화꽃으로 가자시를 하고, 오늘은 돌도 없는 비법을 다하며 거행된 이리아(入綾)에서 섬뜩하게 오한이 들 정도로 이 세상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았다.

(紅葉賀、①314-315)

원래 스자쿠잉 생일 연회에서 히카루젠지가 머리에 장식한 가자시는 단풍나무였다. 그러나 그 단풍나무 나뭇잎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틈이 흰하게 보이는 모습이 히카루젠지의 빛나는 듯한 아름다움에 압도되어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히카루젠지 상관인 근위부 좌대장이 단풍나무 대신 천왕 앞에 놓여 있던 국화꽃을 꺾어서 꼽아주고 있다. 이와 같은 근위부 좌대장의 행동은 나뭇잎이 많이 떨어진 단풍나무 가자시가 자신을 포함한 사람들의 두려움을 가증시키지 않을까 우려한 호의적인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헤이안시대에 있어서 가자시는 때와 장소에 따라 제한되고 세분화되어 신분을 식별하고 상징하는 도구로 널리 인식되고 있었고, 『서궁기』 정고(定考)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흰 국화꽃(白菊)은 정승을 노란 국화꽃(黃菊)은 남언을 상징하는 꽃으로 인지되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근위부 좌대장이 어전 국화꽃을 꺾어 히카루젠지 머리에 꼽아준 것은 단순한 배려를 넘어 근위부 중장인 히카루젠지가 무사히 남언이나 대신으로 출세하기를 기원하는 주술적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 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단풍나무가지를 대신하여 좌대장이 바꾸어 장식해준 국화꽃은 공교롭게도 어찌 형용할 수 없이 아름답게 그 색이 발해있어서 좌대장의 호의적이고 주술적인 배려를 무색하게 만들고 오히려 보는 사람에게 오한을 느끼게

할 정도로 또 다른 차원의 초월적인 아름다움을 선보이게 된다. 청해파를 춤춘 히카루겐지와 도노츄조는 정삼품과 정사품하를 하사받으며, 기리츠보 천왕의 히카루겐지에 대한 각별한 총애를 드러내고 있지만, 상기한 인용문에서 히카루겐지의 초월적인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부분은 오히려 앞으로 히카루겐지에게 다가올 고난과 역경을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머리말에서 인용한 화연 장면으로 돌아가고 싶다. 스자쿠잉 생일 연회에서 근위부 좌대장이 가자시를 ‘바꾸어 뽑아주었다’고 묘사되고 있는 것에 비하여, 화연에서 동궁은 ‘가자시를 하사하여’라고 묘사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싶다. 히카루겐지는 근위부 중장으로 동궁이나 근위부 좌대장은 모두 신분과 지위에 있어서 히카루겐지 보다 높은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가자시를 건네주는 행위의 표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동궁의 높은 신분이 의식되고 있다. 따라서 동궁과 좌대장이 히카루겐지에게 가자시를 건네준 것은 같지만 그 표현에 있어서 동궁의 지위와 가자시를 하사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기술하였듯이 헤이안시대의 가자시가 신분과 지위에 따라 제한되고 세분화되어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수직적으로 식별하는 도구로 널리 기능하고 있었다는 점을 상기하고 싶다. 만약 모노가타리가 헤이안시대 궁중의례를 사실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면, 동궁이 히카루겐지에게 가자시를 하사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동궁과 히카루겐지의 신분과 지위를 가시적으로 확인하는 정치적 행위였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과거 왕위계승권을 놓고 라이벌시되었고, 지금은 아름다운 무악을 선보이며 사람들의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는 히카루겐지에 대하여, 동궁은 체계화된 궁중의례 속에서 자신의 절대적인 신분적 우위를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동궁이 히카루겐지에게 가자시를 하사하고 청해파를 요청하는 것은 현실적 권력구조 속에서 자신과 히카루겐지의 정치적 관계를 재구축하는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이와 같은 동궁의 의도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필자는 히카루겐지의 ‘청해파’에 이어 도노츄조가 ‘유화원(柳花苑)’을 춤추고 동궁이 의복을 하사한 부분에 주목하고 싶다.

3. 궁중의례에 있어서 사물(賜物)의 의미와 기능

고대 일본의 궁중의례는 좌방악과 우방악이 연주되고 좌우 무악이 번무(番舞)로 화려하게 연무되는 가운데 천왕 권력을 시청각적으로 확인하고 구현하는 장치로 기능하고 있었다.³⁴⁾ 이러한 궁중의례의 기능은 즉위의례인 대상제(大嘗祭)만 아니라³⁵⁾, 각종 절회나 연회와 같은 궁중의례 속 다양한 의례절차와 조합되어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 때 궁중의례에 참석한 관인(官人)에게 천왕이 ‘사물’을 하사하는 경우가 있었다. 다음은 아스카시대부터 헤이안시대까지 역사서에 보이는 사물 하사 기사 중에서 일부만을 인용한 것이다.

(A) 9월 9일에 천왕은 옛 궁전 안도노(安殿) 정원에서 연회를 개최하셨다. 이날 황태자 이하 오사카베노미코(忍壁皇子)에 이르기까지 옷감을 하사하셨는데 각각 차이가 있었다. (『일본서기』³⁶⁾덴무(天武) 14년(685) 9월 9일)

(B) 아카미도리(朱鳥) 원년 정월 2일에 천왕은 대극전(大極殿)에 납시어 연회를 여러 왕족과 군신에게 베푸셨다. 이날 칙령을 내려서 말씀하시기를 ‘집이 왕족과 군신에게 실없는 문제(수수께끼)를 물어볼 것이다. 이에 대하여 올바르게 답하면 반드시 사물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이에 다케치노미코(高市皇子)가 질문을 받아 정답을 대답하였다. 진개(蓁楷)³⁷⁾로 된 천왕 용포(御衣, 어의) 3벌, 비단 하카마(袴) 2벌, 이와 함께 질 낮은 비단(紬) 20필, 생사 50근, 면사 100근, 옷감 100단을 하사하였다. 이세노오기미(伊勢王) 또한 정답을 대답하였다. 따라서 검게 염색한(阜) 천왕의 용포 3벌, 자주색 하카마 2벌, 질 낮은 비단 7필, 생사 20근, 면사 40근, 옷감 40단을 하사하였다. (『일본서기』아스카(朱鳥) 원년(686) 정월 2일)

(C) 정월 7일에 공경(公卿)에게 연회를 개최하여 옷옷(袍)과 하카마(袴)를 하사하였다. (『일본서기』지토(持統) 3년(689) 정월 7일)

(D) 천왕은 중각문(重閣門)에 거둥하시어 문무백관과 하야토 에미시에게 연회를

34) 平野充子(2012·3) 「古代日本の儀礼と雅楽寮の奏樂場の論理から奏樂の脈絡を読む」, 『音楽学』, p.117.

35) 八木充(1982) 「日本の即位儀礼」, 『東アジア世界における日本古代史講座第9巻 東アジアにおける儀礼と国家』, 学生社, p.58.

36) 이하 본문은 小學館 新編日本古典文學全集에 의한다.

37) 개암나무 껍질이나 열매로 염색을 한 옷감.

배풀었다. 여기저기에서 음악을 연주하였다. 종5위 이상은 의복 한벌을 하사받고, 하야토 에미시 등 또한 위계를 받거나 녹을 하사받는데 각자 차이가 있었다.

(『속일본기』³⁸⁾와도(和銅) 3년(710) 정월 16일)

(E) 천왕은 남쪽 정원에 거둥하시어 대신들과 연회를 하고, 백관 및 발해사신은 조당에서 향연을 배풀었다. 5위 이상은 접의(摺衣)를 하사받았다.

(『속일본기』덴표(天平) 12년(740) 정월 16일)

(F) 법왕은 궁중으로 거둥하여 5위 이상에게 연회를 배풀었다. 도경(道鏡)은 5위 이상에게 접의를 한 사람당 1령(領), 에미시에게 비포(緋袍)를 한 사람당 1령, 수여했다. 좌우대신에게는 면을 각각 1천둔(屯)을 하사하고, 대납언 이하는 각자 차이가 있었다.

(『속일본기』신고케운(神護景雲) 3년(769) 정월 7일)

(G) 이달 초하루에 왕족과 관인 등은 만나서 직어조사(職御曹司)로 갔다. 몇 번 술잔이 돌아간 뒤 태정대신이 말하여 선언하기를, ‘옛날 여제 치하 시대에 궁삭법황(弓削法皇)이 자기 마음대로 대장성(大藏省) 물품을 사용하여 하사하였다. 오늘은 내장료(內藏寮) 용포를 5위 이상에게 하사하고자 한다. 어떤가?’ 왕족들이 말하기를 ‘그것은 매우 흥미롭다’ 친왕 이하 용포를 받아 각각 분산하였다.

(『구력(九曆)』³⁹⁾덴케(天慶) 7년(944) 10월 9일)

(A)는 덴무 천왕이 일상생활을 하던 옛 오카모토 궁전(岡本宮) 건물 앞 정원에서 왕자들을 불러 연회를 배풀었다는 기사이다. 이때 연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신분과 지위에 따라 차등을 주어 옷감을 하사했다고 한다. (B)의 정월 7일은 중국에서 ‘인일(人日)’이라고 하여 이날 날씨에 따라서 사회의 한해 운세를 점치는 한편 궁중에서 군신을 대상으로 연회를 개최하였다. ‘인일’ 연회에서 천왕은 여흥으로 수수께끼 문제를 내어서 이를 맞춘 사람들에게 용포(御衣)와 옷감을 하사하고 있다. (C)는 정월 7일 연회에 참석한 공경에게 천왕이 웃옷(袍)과 하카미(袴)를 하사했다는 내용이다.

이상 (A)부터 (C)까지 아스카시대의 사물 용례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연회에서 하사되는 사물은 연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하사되었고 특히 수수께끼와 같이 연회 여흥을 돋우는 예능에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한 사람에게 하사되었다. 하사되는 품목은 용포 비단 면 옷감과 같은 의류였으며, 그

38) 이하 본문은 新訂増補 國史大系에 의한다.

39) 본문은 東京大学史料編纂所 古記録フルテキストデータベース에 의한다.

대상은 초기에 왕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이후 군신에게도 하사되고 있었다. 따라서 사물은 원래 천왕과 왕족간의 사적인 인간관계에 기반하여 이를 강화시키는 의미가 있었으나 그 대상이 상류귀족에까지 확산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다음 (D)부터는 8세기이후 나라시대의 사물 기록이다. (D)는 정월 16일 답가절회(踏歌節會)에 문무백관과 하야토 에미시에게 연회가 개최되어 각각 악무가 연주된 다음 종5위 이상에게는 의복이 하야토 에미시 등에게는 위계와 녹이 수여되고 있다. (E)도 답가절회로 대신과 백관 및 발해사신에게 사물이 차등있게 하사되는 한편, 천왕이 직접 입고 있었던 ‘접의’는 5위 이상에게 한정되어 하사되고 있다. 금속화폐나 지폐의 유통이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이루어지던 고대 일본사회에 있어서 옷이나 옷감은 일종의 화폐로서 기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연중행사인 절회와 임시 연회에서 옷과 옷감을 하사하는 것은 일종의 급료로 인식되어 절록(節祿)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다⁴⁰⁾.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기능 이외에도 절회나 연회와 같은 공적인 장소에서 관인이 천왕의 용포를 하사받는 것은, 무악이 연주되고 향응이 제공되는 의례 공간을 공유하는 것이 더해지면서 왕과 신하를 인격적으로 결부시키고 유대 관계를 재생산하는 기능이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⁴¹⁾. 무엇보다도 (F)의 경우, 천왕이 아니라 신하인 도경이 5위 이상의 상급관인들과 좌우 대신부터 에미시 까지 녹을 하사하고 있는 예로 신하가 신하에게 녹을 하사하는 이례적인 선례로 자주 다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도경의 행동 배경에는 향연에 있어서 의복 하사가 정치적 인격지배의 유효한 수단으로 인지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 (G)는 덴케 7년(944) 10월 9일조 소인의 「팔조식부경사기(八条式部卿私記)」 일문으로, 겐케 6년(882) 원일절회(元日節會)가 중지된 때의 기사이다. 이에 의하면 이전에 궁식법황 도경이 정월초하루에 대상성 물품을 관인들에게 지급한 것에 대하여, 후지와라노 모토츠네(藤原基経)가 이번에는 내장료

40) 山下信一郎(2012) 『「延喜式」からみた節會と節録-「賜」の考察』 『日本古代の国家と給与制』 吉川弘文館, pp.180-184.

41) 梅村喬(1986・1) 『饗宴と祿-“かづけもの”の考察』 『歴史評論』 429, pp.37-38. 饗場宏・大津透(1989・6) 『節祿について-「諸節祿法」の成立と意義』 『史学雑誌』 98-6, p.57.

의 물품을 지급하고자하는데 어떠냐고 물어보자 왕족들이 ‘흥미롭다’고 답하고 있다. 이 기사에서 천왕의 비서인 구로우도(藏人)를 매개로하여 천왕가의 재물을 관리하는 내장료는 헤이안시대 관인들에게 있어서 천왕의 인격적 의지와 밀접하게 관계되는 기관으로 인지되고 있었고, 여기에서 지급하는 물품은 천왕이 직접 입고 있었던 용포에 준하는 ‘하사품’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⁴²⁾ 이상 8세기이후의 역사서에는 연회나 절회에서 사물을 하사하는 기사가 급증하고 있어서 궁중의례에서 사물을 하사하는 것이 관례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품목은 면·포·의복과 같은 의류로 나라시대와 같고, 그 대상도 연회와 절회에 참석한 사람들이지만 천왕이 직접 입었던 용포의 경우 5위이상인 상위관인으로 제한되고 있었다.

11세기 헤이안시대의 정무 운영 사례를 정리한 『정치요략(政事要略)』에 의하면, 고대 일본사회에 있어서 의복은 신분과 귀천을 구별하는 신분제 지배수단이었고⁴³⁾, 천왕이 직접 입는 용포는 가장 좋은 비단으로 만들어지고 있었으며, 의복은 그 의복 주인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라는 토착 신앙이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천왕이 직접 입었던 옷을 사물로 하사받는 것은 천왕을 직접 모시는 것과 같이 당사자인 귀족에게 있어서 큰 명예임과 동시에 천왕과의 인격적 연대를 강화하고 권력관계를 재확인하는 의미가 있었다⁴⁴⁾.

한편 타인에게 옷이나 옷감을 증여하는 것은 궁중사회에서만 이루어지던 일은 아니었다. 『니혼료이키(日本靈異記)』⁴⁵⁾중권 제34 「고아인 여자아이가 관음보살 동상을 경외하며 의지했을 때 기이한 영험을 나타내며 현세에서 보은을 얻은 인연」 중, 결혼식 음식을 가져온 옆집 심부름꾼에게 담례로 자기 입고 있던 검은 옷을 벗어 주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부분에서 일반 서민 사회에서도 신분이 낮은 사람에 대한 공로를 치하하는 뜻으로 옷을 벗어 하사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지위가 높은 손위 사람이 지위가 낮은 손아래 사람의 공적이나 고충에 대하여

42) 古尾谷知浩(1991・12) 「古代の内蔵寮について」 『史學雜誌』100-12, pp.38-39.

43) 「王制の衣服を為す所以は貴賤を表す也」(1935) 『糾弾雜事七 男女衣服並資用雜物等事』 『新訂増補國史大系 政事要略卷六七』 國史大系刊行會, p.540.

44) 梅村喬(1986・1) 「饗宴と禄“かつけもの”の考察」 『歴史評論』 429, pp.37-38.

45) 본문은 ちくま学芸文庫에 의한다.

선물을 부여하는 것을 가즈케모노(被け物)라고 칭하기도 한다. 가즈케모노라는 명칭은 궁중행사나 귀족연회에서 큰 공을 세우거나 연회에서 훌륭한 무악을 연기한 사람 어깨에 옷이나 옷감을 걸쳐주는 것에서 유래되었다. 가즈케모노는 궁중의례의 사물이 귀족연회나 서민사회에까지 파급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능은 사물과 같다고 생각된다. 즉 경제적 통화단위인 옷감을 증여한다는 의미 이외에도 가즈케모노를 부여하는 사람과 부여받는 사람의 신분적 관계를 재확인하고 두 사람을 인격적으로 결합시키는 기능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시 머리말에서 인용한 화연 장면으로 돌아가고 싶다. 화연장면에서 동궁은 가자시를 하사받은 히카루겐지가 청해파 한 소절을 연무하지, 도노츄조를 찾으며 똑 같이 무악을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를 미리 예상했는지 무악을 치밀하게 준비해온 도노츄조가 ‘유화원(柳花苑)’을 흥취 있게 연무하자 이에 대하여 동궁은 자신이 입고 있던 의복을 사물로 하사한다. 이와 같이 동궁이 자신이 입고 있었던 의복을 하사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자신과 도노츄조의 신분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인격적 결합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한편 이와 같은 동궁의 행위는 모노가타리 안에서 어떤 정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

필자는 앞서 머리말에서 인용한 화연 장면 본문의 이중 밑줄 부분 ‘사람들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생각하였다’에 주목하고 싶다. 생일연회와 화연에 참석한 사람이라면 두 궁중의례에 있어서 가장 큰 공이 있었던 사람은 기리츠보 천왕의 치세를 종교적 감동으로 승화시켰던 히카루겐지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다수 사람들의 평가와는 달리 동궁은 ‘유화원’을 연무한 도노츄조를 가장 높이 평가하며 자신이 입고 있었던 옷을 벗어 사물로 하사하고 있다. 화연에서 공식적으로 연기된 ‘춘앵전’의 무인이나 생일연회에서 ‘청해파’를 연무한 히카루겐지가 아니라 동궁의 즉흥적인 요청에 따라 ‘유화원’을 연무한 도노츄조에 대하여 사물이 하사되는 것을 사람들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동궁의 이례적인 행동이 일반사람들의 시점에서 새삼스럽게 강조되어 그려지고 있는 부분은, 작가가 동궁의 정치적 의도나 구상을 독자들에게 암시하는 장면이 아닐까?

무엇보다도 생일연회 장면과 화연장면에 있어서 누가 중심적 인물로 그려지고 있는지 주목하고 싶다. 앞서 거행된 생일연회의 중심적 인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적 감동을 준 히카루겐지라는 것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비하여 화연장면에서 동공과 히카루겐지의 관계는 가자시를 통하여, 동공과 도노츄조의 관계는 사물에 의하여 각각 확인되면서 동공중심의 권력관계가 재조정되고 있다. 따라서 화연 행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중심은 기리츠보 천왕이나 히카루겐지가 아니라, 히카루겐지와 도노츄조에게 적극적으로 무악을 요청한 동공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동공을 중심으로 한 권력관계 재구축이 히카루겐지와 도노츄조 두 사람에게 반드시 균일하고 수평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싶다. 동공은 히카루겐지에게 가자시를 도노츄조에게 자신이 입고 있던 의복을 하사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보자. 헤이안시대 궁중의례에 있어서 가자시는 신분과 지위에 따라 제한되고 세분화되어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의 신분과 지위를 나타내는 표식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화연에 있어서 동공이 히카루겐지에게 머리장식을 하사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히카루겐지의 신분과 지위를 명확히 하는 의미가 있었다.

이에 비하여 헤이안시대에 있어서 천왕이 자신이 입던 옷을 왕족이나 신하에게 사물(賜物)로 하사하는 것은 신분관계를 확인하는 의미만이 아니라 신하와의 인격적 결합을 강화하는 정치적 의미가 있었다. 그렇다면 동공이 도노츄조에게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사물로 하사하는 것은 그와 인격적 연대를 꾀하고 나아가 권력핵심에 기용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는 히카루겐지에게 가자시를 하사하여 자신과의 신분관계를 명확히 하던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생일 연회에서 기리츠보 천왕이 청해파를 축춘 히카루겐지와 도노츄조에게 각각 정삼품과 정사품의 지위를 하사했던 것과도 대비되고 있다. 따라서 두 사람에게 하사된 사물의 차이에서 천왕 즉위 후 도노츄조를 자신의 측근으로 기용하지만, 상대적으로 히카루겐지와는 거리를 두려한 동공의 정치적 구상을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4. 맺음말

나라시대 궁중의례에 있어서 식물 머리장식(挿頭)을 머리에 꽂는 것은 식물의 생명력을 받아들이는 주술적인 행위이며 통일된 장식을 통하여 행사의

취지를 공유하고 일반인과 행사참석자를 구분하는 표식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그러나 헤이안 시대가 되면서 머리장식은 의례 소품으로 정착하여 신분과 지위에 따라 제한되고 세분화되어 행사참석자의 신분과 지위를 식별하는 표식으로 기능하게 된다. 화연에 있어서 동궁이 히카루겐지에게 머리장식을 주는 것은 생일연회에서 히카루겐지가 촌촌 ‘청해파’를 소도구를 사용하여 재현하라는 의도였지만, 그 배경이 나라시대가 아니라 헤이안 시대라는 점에서 히카루겐지의 신분과 지위를 명확히 하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한편 동궁이 히카루겐지의 청해파에 이어 도노츠히조에게 무악을 의뢰하고 그 포상으로 자신이 입었던 옷을 하사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다. 헤이안시대에 있어서 천왕의 옷을 왕족이나 신하에게 사물(賜物)로 하사하는 것은 친밀감을 표현하는 정치적 행위로 사물 하사가 의례화되면서 그 의도는 퇴색되어 갔지만, 천왕이 직접 입었던 용포를 하사하는 것은 신하와의 인격적 결속을 꾀하고 권력관계를 재구축하는 정치적 의미가 있었다. 따라서 동궁이 도노츠히조에게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사물로 하사하는 것은 그와 인격적 연대를 꾀하는 정치적 행위였다고 생각된다. 이는 히카루겐지에게 머리장식을 하사하여 자신과의 신분관계를 명확히 하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와 같이 두 사람에게 하사된 사물의 차이를 통하여, 즉위 후 스자쿠 천왕은 도노츠히조를 측근으로 기용하여 권력구도 재편에 핵심적인 역할을 부여하고자 생각하고 있었던데 비하여, 스자쿠 천왕의 권력구상에서 히카루겐지의 역할은 상당히 제한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参考文献>

- 김홍래(2014) 「히카루겐지의 무악 - 궁중의례의 의미와 기능을 중심으로」 『일본 악무와 문화』 민속원, pp.200-201.
- 饗場宏・大津透(1989・6) 「節祿について-「諸節祿法」の成立と意義」 『史学雑誌』98-6.
- 梅村喬(1986・1) 「饗宴と祿-“かづけもの”の考察」 『歴史評論』429.
- 小川章(1985・10) 「古記録記事を通して見たる禁色勅許-平安後期殿上人層を中心として-」 『国史学』127.
- 小川安朗(1986) 『万葉集の服飾文化』下, 六興出版.
- 大丸弘(1964・2) 「禁色雑袍の風俗史的研究」 『風俗』3-3.

- 河添房江(1992) 『源氏物語の喩と王権』 有精堂出版.
- 小林真由美(2001・6) 『『萬葉集』の宴-思ふどちかざしにしてな-』 『成城芸芸』175, p.40.
- 佐多芳彦(2001) 『服装の表象性と記号性-盤領と垂領-』 『日本歴史大事典』第三卷特集
項目、小学館.
- 武田佐知子(1984) 『古代国家と衣服制-袴と貫頭衣-』 吉川弘文館.
- 武田佐知子(1997) 『花をまとう、花を贈る』 『朝日百科植物の世界』一二、花の発見
- 永島朋子(2002・3) 『奈良・平安期における挿頭花装飾の意味と機能-貴族と身分標識』
『延喜式研究』18, p.11-19.
- 永島朋子(2006・11) 『挿頭花と大嘗祭-挿頭花の献上と下賜-』 『専修史学』41, p.40-41.
- 中村義雄(1978) 『魔よけとまじない-古典文学の周辺-』 塙新書.
- 平館英子(1998) 『触られる自然』 『万葉歌の主題と意匠』 塙書房.
- 平野充子(2012・3) 『古代日本の儀礼と雅楽寮の奏楽-場の論理から奏楽の脈絡を読む-』
『音楽学』, p.117.
- 堀淳一(1997・3) 『青海波選曲の理由』 『中古文学』, pp.103-117.
- 松井健児(2002) 『朱雀院行幸と青海波』 『源氏物語の生活世界』 翰林書房.
- 三田村雅子(2002・4) 『青海波再演-「記憶」の中の源氏物語』 『源氏研究5』, pp.30-54.
- 古尾谷知浩(1991・12) 『古代の内蔵寮について』 『史學雑誌』100-12, pp.38-39.
- 古瀬奈津子(1998) 『日本古代王権と儀礼』 吉川弘文館.
- 八木充(1982) 『日本の即位儀礼』 『東アジア世界における日本古代史講座第9巻 東アジア
における儀礼と国家』 学生社, p.58.
- 山下信一郎(2012) 『『延喜式』からみた節会と節録-「賜」の考察』 『日本古代の国家と給
与制』 吉川弘文館, pp.180-184.
- 湯浅浩志(1993) 『植物と行事-その由来を推理する』 朝日選書.
- 湯浅幸代(2007・9) 『朱雀院幸行の舞人・光源氏の菊の「かざし」-紅葉と菊の「かざし」
の特性、及び対照性から-』 『日本文学』56, pp.28-29.
- 吉川英史(1948) 『日本音楽の性格』 わんや書店.
- 吉川真司(1998) 『律令官人制の再編』 『律令官僚制の研究』 塙書房.
- 和歌森太郎(1981) 『花と日本人』 『和歌森太郎著作集』第八巻、弘文堂.

접 수 일: 6월 30일
심사완료: 7월 25일
게재결정: 7월 29일

<Abstract>

Hikarugenji & Tonotyuzyo in Hananoen

: focus on the functions of headdress & imperial gift in court ritual

In court ritual of Nara period, embellishing headdress that made with the plant, was an magical act what accept of the vitality of plants, and had an function which to share the spirit of the event and to distinguish between participants as the event marker. However, as the Heian period, headdress is fixed as a ritual props, and is had the function as the marker indicating the position or identity of the people who attended the event. In Hananoen, Prince giving a headdress to Hikarugenji, maybe means to pray magical or to reproduce using props, but I think it was meant to be clarify the identity and status of Hikarugenji.

And, Tenno grant the cloth his wore, is an political action expressing the personal solidarity. It means the seeking of political relations and moral solidarity with servants, that tenno deign his worn cloth to him. So prince grant his cloth to Tonotyuzyo, is an political action to bilt the personal solidarity with him. It is contrast to giving an headdress to Hikarugenji and to identity of their relationship clearly. So we can see that the prince has an imagination to make Tonotyuzyo his confidant, and to exclude Hikarugenji in his reign, from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Tamamono.